

“대촌 그린벨트 70만평 해제, 발전 동력 활용”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사람 중심, 건강한 남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최영호(49)남구청장은 지난 8일, 민선 6기 4년 동안 지역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선 5기 4년동안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던 구청 청사를 이전하는 독심을 보여줬고,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해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 4년 간 ▲푸른길 명품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강화 ▲자녀 키우기 좋은 안전한 남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도로와 도시 남구 건설 ▲자연과 공존하는 남구 등 7가지를 역점에 두고 구정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집무실에서 만난 최 청장은 시종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4년 간 구정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어서 인지 질문을 할 때마다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남구 구정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일목요연하게 저장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
- 재선 소감과 포부는.

가 절거, 푸른길 공원 조성 등 남구 신청사로 내세운 최영호(49)남구청장은 지난 8일, 민선 6기 4년 동안 지역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는 지역 내 그린벨트 구간을 일부 해제해 새로운 남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구 전체 면적의 64.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가운데 70여만평을 해제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곳에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한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국책사업 또는 광주시 전락사업 등을 유치하겠다.

셋째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지역 경제 발전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도 100개 정도 새롭게 육성하고 전통발효식품 클러스터도 조성할 생각이다. 로컬푸드 직매장도 설치 운영하고, 일자리 공시제도도 도입해 신규 일자리 1만 5000개를 만들어 내겠다.

- 남구 재정이 취약한 편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지난 4년 동안 80건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432억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



최영호 청장 프로필 ▲1965년 보성 출생 ▲광주 금호고·전남대 무역학과·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5·18 기념재단 이사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대 광주 남구청장 등 역임.

백운광장-신청사 연계 핵심 도심구역 조성

정부 공모사업 적극 활용 예산 끌어올 것

▲ 주민들께서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셨다. 저에게 다시 한 번 남구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알겠다. 앞으로 4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난 민선 5기에는 문화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민선 6기에는 지난 4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백운 광장 일대와 대촌 그린벨트 지역 일부 해제 등을 통해 남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정을 다시 이끌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영광으로 생각한다.

- 민선6기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 이번 선거에서 6대 분야 89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다음 3가지 사항이다.

첫째, 남구의 중심, 백운광장 일대를 새롭게 만들어 지역 핵심구역으로 구축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옛 보훈병원 부지 6000여평 개발과 도시철도 2호선 조성, 백운고

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올해에도 벌써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67억원 등 정부 공모사업에 18건이 선정됐다. 확보된 사업비가 벌써 115억원이다.

재정 확보를 위해선 적당히 노력해선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 확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앞으로로도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끌어 오겠다. 남구에 근무하는 유능한 공무원들과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교육분야 정책과 계획은 어떤가 있다.

▲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구민 도서관과 6개 거점 도서관을 만들어 그 체계를 먼저 잡겠다. 그 뒤 공립으로 소규모 도서관, 테마형 도서관 등 20개 도서관을 임기내 만들어 그물망식으로 촘촘하게 남구 구석구석에 도서관을 짓겠다.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생

각이다.

- 그린벨트 구간 일부를 해제, 지역발전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세부 내용은.

▲ 남구는 행정구역대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64.3%로 동구 54.7%, 서구 23%, 북구 37.8%, 광산구 56% 등 타 자치구에 비해 개발제한 구역 비중이 턱없이 높다. 이로 인해 남구는 개발 가능한 자원이 한계에 이르러 도시발전이 그린벨트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비율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개발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촌지역 그린벨트 중 70만평 정도를 임기내에 꼭 해제하겠다. 그곳에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배후도시로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정부 국책사업 또는 광주시 전락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 주민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

정인가.

▲ 지난 4년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97차례 운영한 바 있다.

민선 6기에는 주민을 만나는 기회를 더 늘릴 것이다. 주민 의견을 정책 결정부터 반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 지난 민선 5기에서 나온 성과를 거뒀다. 구청 공직자들과 주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도 지역의 중요한 일은 꼭 주민 여러분과 상의해 결정하고 추진하겠다. 남구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선급·해운조합 10년간 왜 감사 안했나”

“靑 중대한 문제 없다는 건 권력 눈치보기”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법무부·감사원 기관보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 감사원의 부실감사 논란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실패를 질타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경의 미흡한 수사 성과를 꼬집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과 검찰이 청와대 책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검·경에서 유병언 회장이 소유주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범죄사실 확인 전이라도 소액파악을 해놓을 수 없었나”라며 “이 엄청난 사건 책임자의 소재 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한 국민 말씀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번 사태를 감사 받은 기관에 떠밀고 10년 넘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탐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 힘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 했다”라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김철 의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청와대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왜 사고가 났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라는 핵심적 문제는 비껴간 중간 발표”라면서 보다 더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청와대에 대해서 실질감사를 했다. 여기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만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수사 요구에 “수사할 단서가 생기면 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해경 측의 잦은 통화가 그 단서라는 우 의원의 주장에는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단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또 동해로 발사

사거리 500여km 내의

발사체 발사 울들어 13번째

북한이 9일 새벽 스킨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20분께 2회에 걸쳐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 상으로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00여km 내외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스킨 계열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스킨계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인 스킨-B와 사거리 500km인 스킨-C, 사거리 700km 이상인 스킨-D 및 그 개량형인 스킨-ER이 있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이번 탄도미사일은 스킨-C이거나 스킨-ER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이번 발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하루 전인 지난 2일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이후 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2월21일부터 이날까지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킨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95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북한은 스킨과 노동 미사일을 총 10발 시험발사했다.

특히 이날 탄도미사일은 황해도 평산 일대에서 발사돼 북한 지역을 가로지른 뒤 동해 공해상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26일에도 평안도 속천 일대에서 노동 미사일 2발을 북한 지역을 가로질러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황해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SIEMENS
BNC빌딩 5층 501호 지멘스 상무점
수협 5층 501호 지멘스 상무점
동행문신지점 지멘스 상무점
신무역 지멘스 상무점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